

中國 山東省 佛像과 三國時代 佛像

김 춘 실

머리말

金春實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教授
弘益大學校 文學博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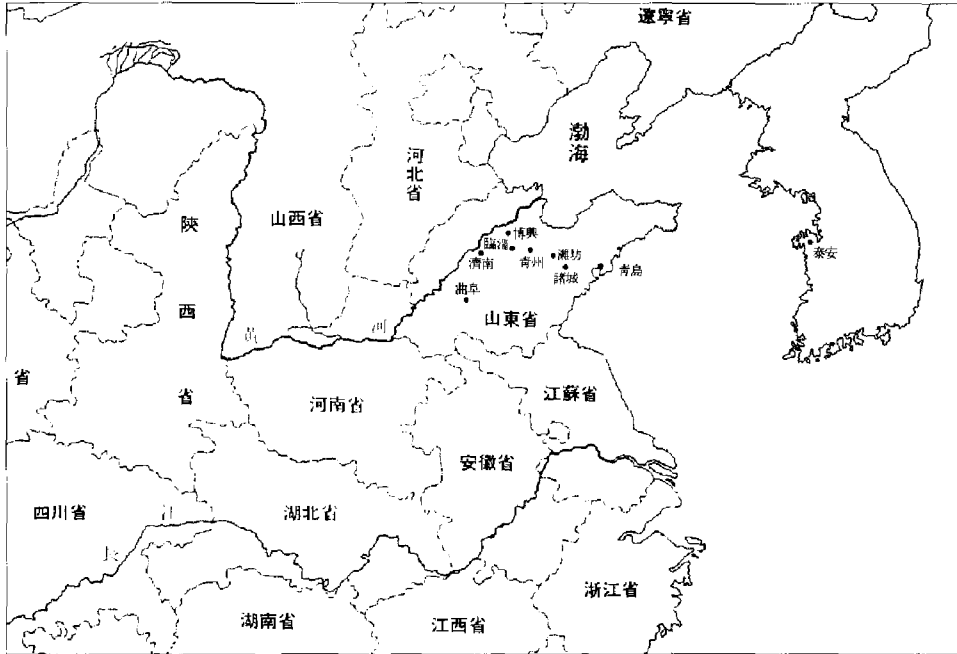
중국 山東省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므로 불교조각의 對中交涉史 연구에 서 항상 중요한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다¹. 특히 산둥성 靑州의 駝山石窟이나 雲門山石窟, 그리고 濟南의 千佛山, 神通寺址와 같은 석굴사원들은 三國時代 磨崖佛 내지는 石佛의 조성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주목되었던 불적들이다.¹ 한편 이들 석굴사원 외에 1970년대 후반 이후 산둥성의 古都인 諸城과 靑州 등지의 사원지에서 대규모의 金銅佛이나 石佛의 출토 사례가 이어져 학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로써 산둥성의 불상 자료는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이들 중 北魏나 東魏代의 一光三尊佛 계통의 금동불상들은 삼국시대의 6세기 금동불상과 매우 흡사한 조형을 보여서 그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는 가장 주목되어 온 바이다.² 이 밖에도 청주 龍興寺址 出土의 北齊代 偏袒右肩 如來立像이나 半跏思惟石像 등도 삼국시대 불상들과의 관련성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었다.³

* 필자의 논저: 「新羅末・高麗前期 靑州地域의 佛教文化」, 『中原文化論叢』 2・3합집, 1999, 6; 「百濟 7世紀 佛像과 中國佛像」, 『先史와 古代』 15, 2000; 「7世紀 前半 新羅 佛像樣式의 전개와 특징」, 『美術資料』 67, 2001, 12; 「朝鮮時代 佛教童子像」, 『佛教童子像』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도록, 2003 등.

¹ 黃壽永, 「泰安의 磨崖三尊佛像」, 『歷史學報』 17・18(1962, 6), 『韓國의 佛像』(문예출판사, 1989), pp.215-226 재수록.

² 岡田健, 「佛教彫刻における朝鮮半島と中國・山東半島の關係」, 『日韓兩國に所在する韓國佛教美術の共同調査研究 研究成果報告書』(奈良國立博物館, 1993, 3), pp.11-18; 郭東錫, 「金銅製一光三尊佛의 系譜—韓國과 中國 山東지방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51(1993, 6), pp.1-22; 金理那,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과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제4회 전국미술사학대회(예경출판사, 1996); 金春實, 「三國時代 如來立像 樣式의 展開—6세기 말-7세기 초를 중심으로」, 『美術資料』 55(1995, 6) pp.10-41.

³ 大西修也, 「山東省 靑州出土 石造半跏像と韓國半跏像」, 『文化史學』 11・12・13합집(1999, 12),



도 1
산동성 지도

이로써 산동성의 불교미술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高句麗, 百濟, 新羅 각국의 불교미술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조각사 연구에서 중국 산동성 출토 불상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매우 필수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자료와 더불어 최근 새로 발견된 石窟寺院과 寺院址 출토 불상 등 산동성의 불상 자료는 그 수량과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자료가 정리되고 소개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까지는 산발적으로 소개되고 단편적인 비교 고찰에 그친 감이 있다. 이에 삼국시대 불상들과 연관되는 南北朝時代부터 隋, 初唐代까지의 산동성의 불상 자료를 개괄적이거나 전체 윤곽을 검토하여 이를 삼국시대 불상 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먼저 산동성의 불상을 크게 석굴사원과 사원지 출토 불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산동성 불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불상들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산동성 불상이 삼국 각국의 불상 조성에 미친 영향의 범위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pp.937-952; 大西修也, 「山東省青州出土石造半跏像の意味するもの」, 『佛教藝術』 248(2000), pp.53-67; 金春實, 「7世紀 前半 新羅 佛像樣式의 전개와 특징」, 『美術資料』 67(2001), pp.1-33.

山東省의 불상



도 2
산동성 曲阜 출토
東魏 天平 4年銘(537)
석조삼존불상,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산동성의 불교미술은 이미 東漢代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953년 발굴된 沂南縣 東漢代 畫像石墓의 中室 八角石柱에는 東王公, 西王母像과 더불어 두광이 있는 立佛 형태의 초기불상이 나타나고 있다.⁴ 南北朝代 이후는 당시의 중심지역인 濟南과 靑州를 중심으로 양 지역의 인근에 불적이 남아 있다. 濟南은 보다 서쪽에 위치하여 남북조대의 중심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皇始 元年(351) 山東에 와서 이후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한 前秦의 승려 僧朗(朗公으로 불리기도 함)이 세운 朗公寺 즉 神通寺가 있는 지역이다. 靑州는 북위에서 북송대까지 산동성의 古都로 寧福寺를 시초로 興國寺, 龍興寺, 七級寺 등 많은 사

찰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산동성의 불적은 주로 隋代 석굴사원인 千佛山·神通寺·駝山·雲門山 등을 중심으로 알려져 왔고, 단독 석불상은 산동성박물관 소장 正光 6년(525) 張寶珠造石造三尊佛像이나 現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曲阜 출토 天平 4年銘(537) 石造三尊像 도2의 예로 보아 중원의 보수적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북위대로 올라가는 黃石崖石窟이나, 수대의 玉函山石窟 등이 새롭게 알려졌고, 또한 博興 龍華寺址 출토 불상이나 諸城 출토 불상, 그리고 靑州 龍興寺址 출토 불상 등과 같은 인도풍이 농후한 불상들이 寺院址에서 대규모로 출토되면서 그 내용이 보다 풍부하게 되었다.

⁴ 劉鳳君, 『山東佛教藝術』(藝術家出版社, 2001), pp.8-13.

石窟寺院

1) 南北朝代

이 시기의 석굴은 주로 濟南의 인근에 위치하는데 黃石崖와 龍洞의 磨崖造像, 長淸縣의 蓮花洞 등이 있다. 이 석굴들은 지역에서 발원한 소규모의 磨崖龕窟로 바위면에 낮은 龕을 뚫거나 천연 동굴을 이용하여 석굴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중 黃石崖의 불상들은 전형적인 북위 후기 양식을 보여서 주목되는데, 大龕이 1개, 小龕이 28개, 조상이 약 79軀 정도로 北魏 正光부터 東魏 興和 연간의 題記가 8곳에 있다고 한다.⁵ 대굴의 동벽과 서벽에 부조된 一光三尊佛像이 대표적인 상인데, 본존상의 경우 머리 부분이 깨져 없어졌으나 施無畏 與 願印의 수인에 가슴에 띠매듭이 늘어진 北魏式 着衣法을 하고 있으며 옷주름은 각이 서게 깊게 조각되고 옷자락이 옆으로 강직하게 뻗치고 있는 표현에서 산동의 불상 중에는 이른 시기의 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도3}. 보살상 역시 천의가 양 어깨에서 옆으로 뻗치고 몸 앞에서는 넓게 X형으로 교차하여 몸의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북위 후기 양식을 보인다. 광배는 거의 선각으로 두광과 신광은 5줄의 둥심원과 당초문으로 이루어지고, 그 바깥으로 飛天과 化佛이 얹게 부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황석예의 불상들은 고구려의 6세기 불상들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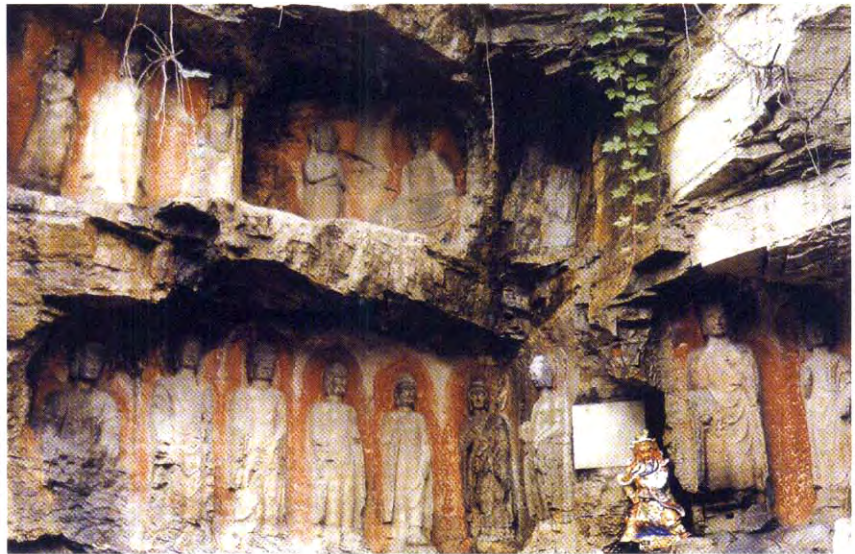
도3
濟南 黃石崖大窟 西壁
삼존불상, 北魏

龍洞은 제남시 동쪽 교외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마애감굴로 1개의 천연동굴 내부와 외부에 東魏와 隋代의 부조상이 있다. 이들 중 龍洞 西洞口內 西壁 如來立像은 어깨가 넓고 장신의 불신을 보이는데 특히 백제의 태안 마애삼존불의 여래입상과 비교된다.⁶ 수대 상들은 선정인의 좌상을 본준으로 하는 三尊佛坐像 형식을 취하고 있다.

⁵ 張總, 「山東歷城黃石崖磨崖龕窟調查」, 『文物』(1996. 4), pp.37-46.

⁶ 劉鳳君, 앞의 책, p.88 사진 참조.

도 4
濟南 千佛山 興國禪寺內
마애조상, 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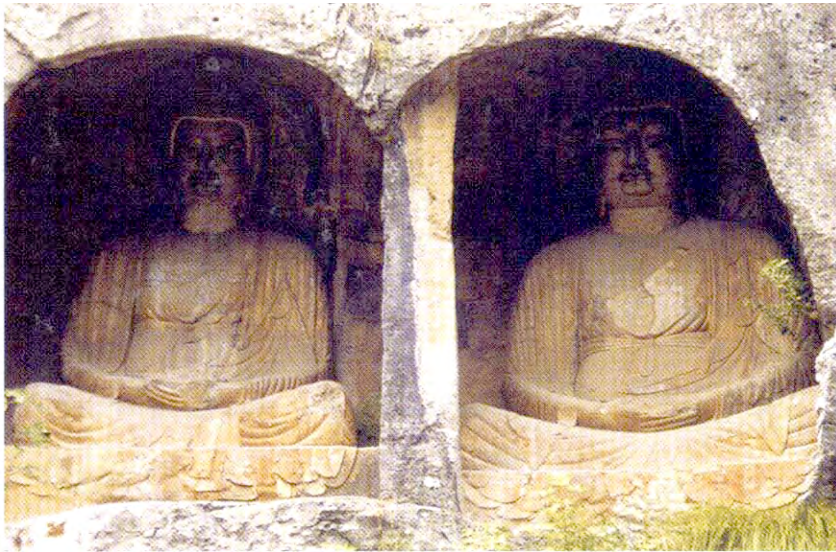
2) 隋, 唐代

산동성에서는 특히 수와 초당대에 걸쳐 대규모의 석굴사원 개착이 여러 곳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남 지역에서는 앞 시기에 이어서 千佛山·玉函山·神通寺址石窟 등이 개착되었고, 청주 지역에서도 駝山石窟이나 雲門山石窟 같은 수대를 대표하는 대규모의 석굴사원이 개착되었다. 이 시기에 산동 지역에서 석굴사원의 조성이 활발했던 배경으로는 남북조대의 혼란기에 이 지역이 중심부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폐불의 피해가 덜했으며, 또한 귀족이나 지방 관료층으로 구성된 확고한 후원자 계층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석굴은 주로 선정인 계통의 아미타불이 중심이어서 산동성 나름의 독자적인 양식과 신앙 형태를 보인다.

A. 濟南 지역

먼저 제남 지역의 석굴사원을 살펴보면, 千佛山 마애조상은 興國禪寺內 뒷산에 위치하며 隋 開皇 연간에 개착된 석굴이다. 층층이 부조된 옆으로 긴 方形龕이 유행하여 이곳에 같은 모습의 불상과 보살상이 병렬로 三尊 내지 七尊 등 일정하지 않게 부조되고 어떤 것은 十尊도 조각되고 있다^{도4}. 玉函山石窟도 隋 開皇 연간 개착된 석굴로 바위면에 옆으로 긴 감이 층층이 있고 이곳에 역시 같은 모습의 선정인의 좌불들이 병렬로 부조되어 있다.

神通寺千佛崖 造像群은 제남의 대표적 석굴로 寺域의 입구에 四門塔이 있고 건



도 5

濟南 神通寺 趙王福

發願 龕, 唐 顯慶 2年(657)

물지에는 僧塔과 龍虎塔이 있으며, 그 위쪽 산인 千佛崖에 初唐代의 造像들이 집중되어 있다. 신통사는 前秦代 僧朗부터 唐代까지 통치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절로, 隋 文帝代 이후 神通寺란 이름을 받았고 이후 산동 지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⁷ 사문탑 내부에는 중심기둥의 4면에 방형대좌에 앉은 불좌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 상들은 이전에는 동위대 제작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수대 作으로 본다.

千佛崖에는 남북 60m의 바위면에 200여 존의 조상이 있는데, 紀年題記가 있는 것 중에는 唐 貞觀 18년(644) 신통사의 주지였던 僧 明德이 발원한 龕, 顯慶 2년(657) 唐太宗의 딸인 南平長公主가 그의 아버지를 위해 발원한 감, 그의 남편인 劉玄意가 발원한 감, 그리고 顯慶 2년(657) 당태종의 13번째 아들인 趙王福이 발원한 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승려 명덕이 발원한 감은 두 손을 무릎에 얹고 나란히 앉아 있는 二佛의 형상이고, 남평장공주가 발원한 감은 독존상이고, 유현의 발원 감은 竹節이 조각된 門柱 양쪽에 고부조의 力士像이 있고 내부에 독존의 倚坐形의 미륵상이 있는 모습이며, 조왕북이 발원한 감은 규모가 비교적 큰데 감 가운데 石柱가 있고 양쪽에 선정인의 좌불이 나란히 있다 도5. 이들 중 유현의가 조상한 감은 양감이 풍만한 의좌상의 모습과 역동적 자세의 역사상 표현에서 새로운 초당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 외의 상들은 대체로

⁷ 梁銀景, 「山東 神通寺 千佛崖의 銘文分析과 造像의 傳統性, 新要素-太宗, 高宗初期 佛龕을 중심으로」, 『美術을 통해 본 中國史』 중국사학회 제5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2004, 10), pp.200-205.



도 6
青州 駝山石窟 2호굴, 隋

공통된 모습으로 한 감에 二佛이 나란히 있는 것이 많으며, 불상은 풍만한 체구에 어깨에 끈 장식이 붙은 通肩 가사를 입고 두 손을 무릎에 얹거나 선정인을 하고 있는 좌불 형상이어서 수대 이래 제남 지역에서 크게 유행되었던 전통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상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B. 青州 지역

다음 청주 지역의 석굴사원으로는 駝山石窟과 雲門山石窟이 대표적 예이다. 청주 지역은 남북조대에 이미 불교가 융성하여 많은 사원지 출토의 금동불이나 석불상이 전하고 있으나, 석굴사원의 경우는 隋代에 와서야 개착이 활발해지고 있다.

駝山石窟은 산둥성 청주시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駝山 南麓에 위치하며 운문산석굴과 마주보고 있다. 5개의 굴과 1개의 마애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北周에서 隋, 唐代의 상이 있다.⁸ 이들 중 2, 3호굴은 산둥성뿐 아니라 수대 전체를 대표하는 굴로 규모도 크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도6. 3호굴의 주존 대좌에는 “大像主青州總管柱國平桑公”이란 銘이 있어 수대 青州總管을 지낸 韋操라는 인물에 의해 조성된 굴로 추정되고 있다.⁹

⁸ 李裕群, 「駝山石窟開鑿年代與造像題材考」, 『文物』(1998, 6).

⁹ 梁銀景, 「中國 駝山石窟 佛教彫刻에 대한 考察」, 『佛教美術研究』 2(1995, 12), pp.123-148.



도 7

青州雲門山石窟 1호굴, 隋

두 굴 모두 제남 지역 석굴상들과 달리 오른손을 들어 시무외인을 한 阿彌陀印의 本尊坐佛과 寶冠에 淨瓶과 化佛이 표현된 보살입상이 협시한 阿彌陀三尊佛窟로 좀더 수대 중앙양식에 가깝다. 본존상은 머리부분이 공처럼 둥글고 몸이 괴체적이며, 대의는 몸에 매끈하게 붙어 있고 끝자락이 방형대좌 위에 대칭적으로 늘어지고 있어서 전형적인 수양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대의 형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3호굴 본존상이 보다 古式으로 가슴이 깊게 벌어져 사선으로 입은 내의와 띠매듭이 보인다. 반면 2호굴 본존상은 대의에 割裁衣의 표현이 있고, 왼쪽 어깨에 산동성 수대 여래좌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끈 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협시보살입상의 경우도 둥근 얼굴과 긴 원통형의 불신에 이중 U형 천의와 하의가 몸에 매끈하게 밀착되고 그 위로 斜掛가 길게 늘어져 있어 수대 보살상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3호굴 보살상의 몸이 보다 경직되어 보이고 우협시보살상의 천의도 玉環으로 교차되는 X형 천의여서 전반적으로 조성시기가 올라가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이들 보살상의 착의 표현 중 치마의 뒤집어진 윗단이 가슴까지 올라가 있다든가, 상체에 양쪽 어깨 끈이 달린 속옷을 입고 있는 것 등은 운문산 2호굴의 좌협시보살상이나 청주 용흥사지 출토 석조보살상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산동성 출토 보살상들에서만 보이는 지방적인 특색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⁰ 1호굴은 長安 2年銘(702)이 있는 唐代 굴로, 偏袒右肩에 선 정인을 하고 목걸이와 팔찌를 찬 보살형 여래좌상을 본존으로 하는 5존굴이다.

雲門山石窟은 타산석굴보다 규모가 작는데 1·2호굴이 隋代의 대표굴이고, 3·

4·5호굴은 규모가 작은 唐代 굴이다. 1, 2호굴도 파손이 심한 편으로 불, 보살상의 얼굴이 깨졌으며 2호굴의 본존상은 흔적만 남기고 모두 파괴되었다고⁷. 이들 두 굴의 형식도 타산 2, 3호굴과 같은 아미타삼존불굴이나 보살상의 의장면에서 보다 세속적인 장식이 가미되어 토착화한 양식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호굴의 협시보살상들은 동그란 얼굴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폭이 넓은 치마 같은 하의를 입고 그 위에 화려한 영락과 긴 띠를 늘어뜨리고 있어 마치 속세의 미인을 보는 듯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둥성의 석굴사원은 북위에서 동위대의 예가 黃石崖나 龍洞 등에 일부 있고, 북제대에는 석굴의 개작이 거의 없다가 수, 초당대에 가장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북위에서 동위, 그리고 수에서 초당대 석굴사원의 불상들은 나름의 지역적인 특징이 부분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龍門石窟과 같은 각 시기별 北朝 계통의 중앙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寺院址 출토 불상

산둥성의 사원지 출토 금동불이나 석불 자료는 1970년대 이후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제남 지역보다는 청주 인근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출토 예로는 博興 출토 佛像群, 諸城 출토 佛像群, 青州 龍興寺址 출토 佛像群 등을 들 수 있다.¹¹ 이들 사원지 출토 불상들은 양이 방대하여 세부적으로 각 상마다의 중국 조각사상의 의미를 고찰하는 일은 매우 지난하지만,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작업이다. 그러나 간략하나마 보고서 성격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청주 용흥사지 출토 불상들은 근래에 대규모의 전시회가 열리고 관련 도록도 출간된 상황이어서 중요 자료가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략하기는 하지만 이들 사원지 출토 불상들의 양식 특징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博興 출토 불상

박흥 지역에서는 일찍이 1970년대 이래 대량의 불상 출토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는데, 1976년 3월 張官大隊 龍華寺遺址에서 출토된 동위에서 북제대의 석불상과 塑造

¹⁰ 車俞貞, 「中國 隋代 菩薩像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12), pp.63-75.

¹¹ 이들 외에도 無棣縣, 高青縣, 青州市 興國寺址, 七級寺址, 惠民縣 등에서의 출토 사례가 있다. 惠民地區文物管理組, 「山東無棣出土北齊造像」, 『文物』(1983. 7), pp.45-47; 常敘政·于豐華, 「山東省高青縣出土佛教造像」, 『文物』(1987. 4) pp.31-35; 夏名采·庄明軍, 「山東青州興國寺故址出土石造像」, 『文物』(1996. 5) pp.59-67; 青州市博物館, 「山東青州發現北魏彩繪造像」, 『文物』(1996. 5) p.68; 惠民縣文物事業管理處, 「山東惠民出土一批北朝佛教造像」, 『文物』(1999. 6) pp.70-81.

像 72건, 그리고 1983년 9월 崇德村에서 출토된 북위에서 수대에 걸친 小形銅佛像 101건 등이 대표적인 예들로 모두 지하 매장처에서 발굴되었다.¹²

먼저 1976년 박흥 장관대대 용화사에서 발견된 불상은 대다수 靑石, 白石의 石像들과 佛, 菩薩頭들이고 일부 흰빛의 소조불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중 紀年像은 동위 武定 연간 상 2점과 北齊 天保 元年(550)부터 武平 元年(570)까지의 상이 7점 있는데, 이들은 발견 당시 佛頭가 모두 떨어져 있는 등 파손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아 복주·복제가 멸한 후 파괴되어 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1976년에 출토된 불상들의 양식 특징을 살펴보면, 동위대로 올라가는 예는 드물어서 일광삼존불 형식의 상이 일부 있고 대다수는 단독상 형태의 복제대 불, 보살상들이다. 특히 여래상들은 편단우견의 대의가 몸에 얇게 밀착된 남인도 내지는 동남아 계통 양식의 불상이 많은데, 파손된 불두들도 육계가 낮고 나발이 곱슬거리며 상호가 남방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¹³ 보살상들은 X형으로 교차된 영락을 걸친 예가 많고 역시 남방적인 요소가 반영된 상들이 있다. 한편 北齊 太寧 2年銘(562)을 가진 太子像이 1점 있는데, 불두와 손이 파손되었으나 청주 용흥사지 출토 반가상과 양식이 같은 점이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이들 박흥 용화사지 출토 석상들은 제성이나 청주 용흥사지 출토 복제대 석상들과 같은 이국적인 양식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3년 9월 博興 崇德村에서 출토된 불상들은 모두 101건의 小形 銅佛像들로, 지하 40cm 깊이에서 紅陶 항아리 안에 넣어져 매몰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출토 지점은 1976년 석상들이 발견된 용화사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이며, 크기는 가장 큰 상이 높이 28cm이고 작은 상은 7cm 정도이다. 그중 기년명이 있는 상은 39건으로 太和 2年銘(478) 상을 위시하여 북위대의 상이 가장 많고, 동위, 북제, 그리고 수대 仁壽 3年銘(603)까지의 상이 몇 점씩 있다 도8. 소형 동불상이 일괄로 출토된 예로는 가장 수량이 많으며, 조성시기도 북위 초부터 수대까지 긴 기간 동안 조성된 상이 함께 묻힌 경우이다.

이들 숭덕촌 출토 동불상들은 크기뿐 아니라 조각수법도 소략한 편이어서 조상 형식은 일광삼존불보다는 주형광배에 단독 불입상이나 보살상을 조상한 단순한 예가 많고,

¹² 常敍政·李少南, 「山東省 博興縣出土一批北朝造像」, 『文物』(1983, 7), pp.38-44; 李少南, 「山東博興出土百餘件北魏至隋代銅造像」, 『文物』(1984, 5), pp.21-31; 丁明夷, 「談山東博興出土的銅佛造像」, 『文物』(1984, 5), pp.32-43.

¹³ 劉鳳君, 앞의 책, p.63 사진 참조.



도 8
博興 龍華寺址 출토
北魏 太昌 元年銘(532)
금동삼존불상,
박흥현문화관리소

명문의 내용도 죽은 부모를 위한 것이 대다수인 점으로 보아 소형 불현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인 양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須彌座 위에 봉안된 상이 많으며, 복위대 불상들은 선정인 여래좌상이나 굽은 연화가지로 들은 보살입상 등 초기 형식의 상이 많으며 옷자락이 옆으로 뻗치는 등 전형적인 복위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후 동위 내지 북제, 수대 상들도 용화사지 출토 석상들의 이국적인 풍모와 달리 전통적인 북조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상의 양식 특징으로 보건대 송덕촌 출토 동불상들은 앞의 용화사지 출토 석상들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상들이 많으며, 양식면에서는 전통적인 중국 북조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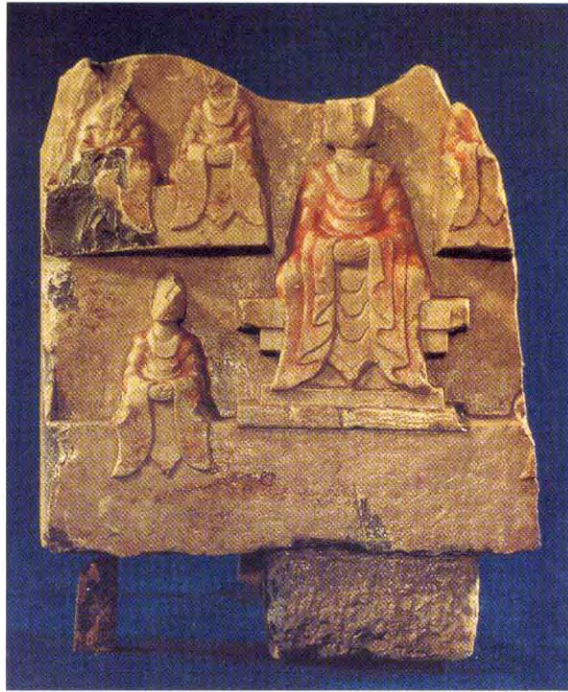
2) 諸城 출토 불상

제성은 산둥반도 중남부에 위치하여 항구도시인 靑島와 가까우며, 옛부터 산둥반도 남부의 육상 교통로에 위치하여 번영한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靑州 龍興寺址 불상들이 출토되기 이전인 1978년과 1988년에 이미 대량의 불상들이 출토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먼저 1978년 출토품은 6구의 金銅佛로, 諸城 林家村에서 採土 중에 지하에서 陶罐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불상들이 들어 있었다.¹⁴ 이들 중 명문이 있는 상은 복위 太和 14年銘(490) 여래입상과 太和 20年銘(496) 여래좌상이고, 나머지는 동위와 북제대로 추정되는 일광삼존불상 2구와 단독 보살입상 2구이다. 태화 20년명 여래좌상은 舟形光背가 있고 須彌座에 앉은 선정인 여래좌상이다. 특히 동위대로 추정되는 일광삼존불상은 우리나라 6세기 일광삼존불상과 양식적으로 매우 흡사하여 이미 주목되었다.¹⁵ 본존상이 보살입상인 일광삼존불상은 보관이 높고 가운데 술 장식이 있으며 몸 앞으로 X형 영락이 걸쳐져 있다. 단독상인 보살입상 2구는 통통한 얼굴과 몸 옆으로 뻗치지 않고 늘

¹⁴ 松原三郎, 「山東省出土の佛像」, 『古美術』 99(1991. 7), pp.72-77.

¹⁵ 註 2 참조.



어지는 천의 표현, 그리고 원형의 두광 등으로 보아 북제대 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 금동불상들은 같은 시기의 북조 중심지역의 양식과 거의 차별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제천시 남쪽 근교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다 北朝寺院遺址의 지하광 속에서 인위적으로 파괴된 石造像 300여 건이 발견되었다.¹⁶ 그중 비교적 완전한 여래상은 21건이고, 보살상은 5건으로 대체로 북위 말기에서 수대까지의 제작시기를 보인다. 이들 중 紀年像은 4건으로 적은 편인데, 東魏 武定 3年銘(545)과 武定

도 9
諸城 출토 금동삼존불상,
東魏, 제천시박물관

도 10
諸城 출토 석조여래좌상,
北魏, 제천시박물관

¹⁶ 杜在忠·韓崗, 康培仁 譯, 「山東省諸城出土의 石佛像について(1)」, 『古美術』 99(1991. 7), pp.78-85; 杜在忠·韓崗, 康培仁 譯, 「山東省諸城出土의 石佛像について(2)」, 『古美術』 101(1992. 1), pp.75-89; 杜在忠·韓崗, 康培仁 譯, 「山東省諸城出土의 石佛像について(3)」, 『古美術』 102(1992); 杜在忠·韓崗, 康培仁 譯, 「山東省諸城出土의 石佛像について(4)」, 『古美術』 103(1992. 8), pp.78-88; 杜在忠·韓崗, 康培仁 譯, 「山東諸城佛教石造像」, 『考古學報』 113(1994. 2), pp.231-261; 松原三郎, 「山東地方의 北朝石像의 一考察—諸城出土의 在銘像二體を中心として」, 『古美術』 101(1992. 1), pp.70-74; 松原三郎, 「諸城派石彫考—南北朝様式上の位置に就て」, 『古美術』 103(1992. 8), pp.69-76; 松原三郎, 「山東地方東部造像考—とくに諸城出土佛像を中心として」, 『中國佛教彫刻史論』(吉川弘文館, 1995), pp.123-134.



도 11
諸城 출토 석조보살상,
隋, 제주시박물관

4년銘의 一光三尊佛像, 北齊 天保 3
年銘(552) 如來坐像, 天保 6年銘 菩
薩立像 등이다. 북위대 상은 드물며
선정인 여래좌상과 주형광배에 부조
된 독존여래입상이 있는데 전형적인
북위양식을 반영한다^{도 10}.

동위대의 무정명 석조삼존불
상들은 가운데 굽은 축이 붙은 주형
광배에 삼존과 비천이 高浮彫되고
광배와 화염문은 음각선으로 묘사되
며 低部에는 雙龍이 배치되는 등 다
음에 살펴볼 청주 용흥사지 출토 동
위대 일광삼존불상들과 동일한 양식
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무정
4년명 석조삼존불상의 본존여래입
상은 용흥사지 출토 동위대 불상들

과 더불어 조각양식뿐 아니라 착의 형식면에서도 북제대 이후에 유행하는 대의 끝단을
왼쪽 어깨 뒤로 넘기는 착의 형식을 이르게 반영하고 있어서, 산둥성 청주 인근의 불상들
이 일찍부터 새로운 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¹⁷

이들 동위대 일광삼존불상 이외의 대부분의 상들은 北齊부터 隋代에 이르는 상들
인데, 이 상들은 長身이면서 자세가 유연하고 얼굴은 둥글고 몸의 양감이 두드러지며 옷
이 몸에 밀착되어 있는 등 본격적으로 이국적인 남인도 계통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들 중 盧舍那佛로 추정되는 상으로 특이하게 대의 위로 긴 띠를 늘어뜨려 장식하고 있는
상이라든가, 영락 장신구를 극도로 번잡하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는 보살상 등은 제성
출토 석조상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예들이다^{도 11}.

3) 靑州 龍興寺址 출토 불상

1996년 10월 현재 청주시박물관 본관 남측의 건축현장에서 대형의 불상을 매장

¹⁷ 杜在忠·韓崗, 康培仁 譯, 「山東省諸城出土의 石佛像について(2)」, 插圖 3 참조.

한 구덩이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역시 인위적으로 파괴된 400여 점의 불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일대는 龍興寺址로 추정되어 오던 곳이다.¹⁸ 龍興寺는 『益都縣圖志』에 의하면 북제대에는 南陽寺였고 당대 이후 龍興寺로 불려졌으며, 일본 승려인 圓仁이 入唐求法 때에 이 절에 머물렀다 한다. 이로써 용흥사는 타산, 운문산석굴이 개착될 즈음 이들과 더불어 산동을 대표하는 명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⁹

구덩이 안의 불상들은 상·중·하 3층으로 정연하게 매몰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완전한 신체는 저장고의 중심부에 배치되고 각종 佛頭는 벽 옆으로 있었다고 한다. 출토 불상은 청주 산지의 청회색 석회석상이 가장 많고 그 외 백옥상과 화강암상이 일부 있고, 소조상은 석상 사이에 겹겹이 포개져 있어서 파손이 심하고 수습하기 어려웠다고 전한다. 불상의 크기는 가장 큰 것은 320cm에 달하고 작은 것은 50cm 정도이다. 불상의 대다수는 북위 말부터 동위·북제·수대 작이 대부분으로, 그중 동위에서 북제시기 것이 가장 많다. 또한 20건의 수·당대 불·보살상과 북송의 羅漢像 등도 있어서 시간적으로 500년을 넘고, 매장시기는 북송 만기로 보고 있다. 그중 기년명 상은 많지 않은데, 북위 永安 2년(529) 韓小華造彌勒三尊佛像, 북위 永安 3년 삼존불상, 북위 太昌 元年(532) 比丘尼惠照造彌勒三尊佛像, 동위 天平 3년(536) 尼智明造三尊佛像, 동위 天平 3년 邢長振造釋迦像 등 북위나 동위대의 일광삼존불상에 일부 있고, 대다수를 점하는 단독 여래상이나 보살상 중에는 기년명이 있는 상이 거의 없다. 이들 불상들의 대좌는 대부분 발견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사원지의 지하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용흥사지 불상들의 양식을 살펴보면 제성 출토 석상의 경우와 같이 북위-동위대는 일광삼존불 형식의 상이 많고, 북제, 수대는 단독상이 대부분이다. 먼저 북위대의 경우는, 永安 2년銘(529) 삼존불상을 통해서 볼 때 아직 중원 북위양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존상은 전형적인 북위식 착의법을 보이고 보살상은 두터운 被巾形의 천의가 어깨를 덮고 있고 무릎 앞에서 X형으로 교차되며 손에는 心葉形 지물을 들고 있다. 따라서 몸에는 양감이 드러나지 않으나 얼굴은 둥글고 귀여워서 산동 지역 특유의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후 동위대 일광삼존불상의 광배에 특징적으로 보이

¹⁸ 山東省青州博物館, 「青州龍興寺 佛教造像窖藏清理簡報」, 『文物』(1998. 2); 中國歷史博物館·山東青州市博物館, 『山東青州龍興寺出土佛教石刻造像精品』 중국역사박물관 특별전도록(1999. 7); 青州市博物館 編, 『青州龍興寺佛教造像藝術』(山東美術出版社, 1999).

¹⁹ 青州市博物館, 「青州龍興寺佛教造像的藝術特色」, 『青州龍興寺佛教造像藝術』(山東美術出版社, 1999), p.6.



도 12
靑州 龍興寺址 출토
석조삼존불상,
東魏, 청주시박물관

는 용은 아직 표현되지 않고 있다. 太昌 元年銘 삼존불상은 비룡이 광배 윗부분에 있는데, 이 용의 위치로써 용흥사지 출토 일광삼존불상의 편년을 시도하기도 한다.²⁰

용흥사지의 동위대 일광삼존불상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앞 시기의 양식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본존상이나 보살상의 착의 형식이 새로워지고 佛身에는 양감이 드러나고 있어 산동 석조상 특유의 양식이 두드러진다 도12. 즉 이 시기 산동 석조상들은 공통적으로 舟形光背에 三尊佛과 飛天·化佛 등을 고부조로 조각하고 화염문은 선각으로 표현하며, 飛龍은 본존불의 대좌 좌우인 저부로 이동하여 용의 입에서 연줄기·연잎·연꽃을 토해 내어 보살의 연화좌를 만들고 있는데 그 표현이 매우 생동감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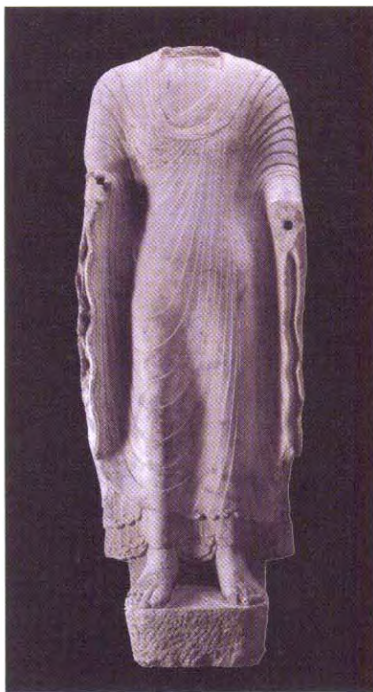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존상의 머리는 길죽하고 육계가 높으며 나발이 촘촘하여 복위의 전통이 남아 있으나,²¹ 착의 형식은 모두 복위식이 아닌 대의의 끝단을 왼쪽 어깨 뒤로 넘기는 새로운 착의 형식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착의 형식은 기존에 알려진 중원의 불상들의 경우는 동위대 상에서는 흔히 볼 수 없고 북제대에 가서야 일반

²⁰ 庄明軍, 「靑州佛教造像之“輪龍”」, 『美術을 통해본 中國史』 중국학회 제5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2004, 10, 7-10, 10), pp.206-219.

²¹ 일부는 인도식의 곱슬머리를 한 상도 있다.

화되는 착의 형식인데, 용흥사지 출토 석조상의 경우는 이미 동위대 불상에서 이러한 착의 형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²²

이 새로운 착의 형식은 중요한 도상 해석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즉 북위대의 도포 형태를 띤 중국화된 착의 형식이 6세기 중엽경 다시 새롭게 남방 海路를 통해서 전해진 인도 불상양식의 영향으로 일부 그 끝 자락만을 어깨 뒤로 넘기는 인도식 착의 형식으로 변형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착의 형식의 원류가 된 불상으로 四川省 成都 萬佛寺址 출토의 梁 中大通 元年銘(529) 석불입상 같은 인도식이 농후한 상들을 들 수 있다.^{도 13}. 필자는 아직 용흥사지 불상들이 발견되기 이전에 이 같은 착의 형식을 “北



도 13
四川省 成都 萬佛寺址 출토
梁 中大通 元年銘(529)
석조여래입상,
사천성박물관

魏式 服制”에 대비해 “北齊式 服制”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²³ 그러나 이미 동위대 산둥성에서 중원 지역보다 이르게 이러한 불상 착의 형식이 유행했으므로, 이 용어는 앞으로 그와 같은 조각사적인 배경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살상의 경우도 얼굴이나 몸의 양감이 두드러져서 일부 허리의 굴곡이 드러나며, X형 천의 위로 다시 옥수수형 구슬다발에 산호, 나비형 장신구가 붙은 화려한 X형 영락을 늘어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영락 장식은 북위대 용문석굴이나 백적산석굴, 또한 성도 만불사지 출토 梁代 불상 등의 보살상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유행한 전통적인 장신구인데, 산둥 지역에서는 동위대 이후 북제, 수대에까지 석조보살상의 가장 특징적인 장신구로 유행을 한다.²⁴

한편 용흥사지 동위대 일광삼존불상들과 양식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을 보

²² 金春實, 『中國 北齊·周 및 隋代 如來立像 樣式의 전개와 특징—특히 如來像의 服制와 관련하여』, 『美術資料』 53(1994. 6) pp.108-134.

²³ 위의 글, pp.128-131.

²⁴ 申倫貞, 앞 논문, pp.33-34.

도 14
陝西省 華陰縣 출토
北魏 永熙 3年銘(534)
석조삼존불상,
미국 프리어 미술관



이는 북위대 상이 있어서 주목되는데, 이 상을 통해 일광삼존불 양식의 전래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미국 프리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북위 말의 永熙 3年銘(534) 석조삼존불상으로, 이 상은 북위양식 해체의 전조를 보이는 가장 이른 예로 이미 주목되었던 상이다^{도 14, 25}. 이 상은 주형광배에 불·보살 삼존과 비천, 비룡 등이 고부조되어 있는 일광삼존불의 기본 형식에서도 용흥사지 상들과 일치하고 있다. 아직 본존상의 대의가 두텁고 보살상의 X형 천의나 십엽형 지물 등이 전형적인 북위식을 보이기는 하나, 얼굴 등에 둥근 맛이 드러나고 특히 본존상의 대의가 북위식이 아닌 끝단이 어

깨 뒤로 넘어가는 새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히 용흥사지 불상들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일광삼존불의 예는 중원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산둥 지역에서는 청주뿐 아니라 제성 출토의 동위대 금동불이나 석불 등에서도 볼 수 있어 크게 유행했다고 짐작된다.²⁶ 한편 남조 梁代의 일반적 불상인 普通 4年銘(523) 석불상 같은 예와 비교해 보면, 양대 불상은 삼존 형식이 아닌 군상 형식을 취하고 본존상은 북위식 착의법을 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로 보면 동위대의 용흥사지 일광삼존불상은 남인도나 南朝의 불상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河南 같은 남조와 인근한 북조 지역의 불상양식이 전해져서 유행된 상들이 아닌가 추정된다.

²⁵ 松原三郎, 「東魏彫刻論」, 『增訂中國佛教彫刻史研究』(吉川弘文館, 1966), pp.93-115; 松原三郎, 「山東地方東部造像考—とくに諸城出土佛像を中心として」, 永熙 3년명 상은 섬서성 華陰縣 출토이나 넓게 남조 지역과 인접한 河南派 조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²⁶ 松原三郎, 「中國佛像樣式の南北—その試論として」, 『美術史』 59(1965); 松原三郎, 「諸城派石彫考—南北朝樣式上の位置に就て」 그는 일찍부터 산둥지방이 北朝에 속한 지역이면서도 내륙 水路를 통해 강남 지역과 쉽게 연결되어 있고, 그 불교문화에 있어서도 南朝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따라서 北魏後期 樣式の 해체과정도 北朝의 다른 지역보다 이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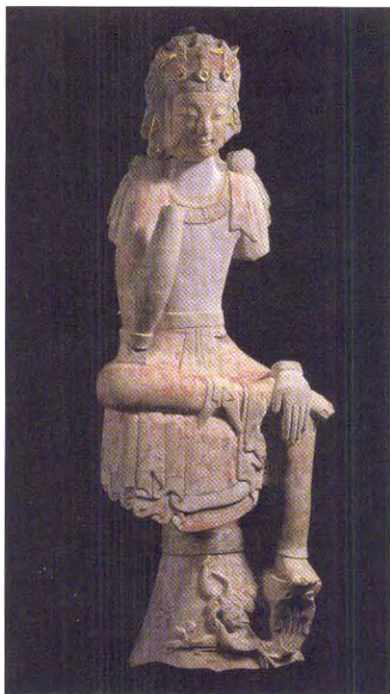


도 15
靑州 龍興寺址 출토
석조여래입상,
北齊, 청주시박물관

도 16
靑州 龍興寺址 출토
석조여래입상,
北齊, 청주시박물관

이러한 전통성을 기조로 한 동위대 용흥사지 불상의 특징이 북제대가 되면 완전히 인도풍 불상들로 바뀌게 된다. 일광삼존불상에서 단독원각상들이 유행하게 되며 특히 여래상에서 그러한 경향이 농후하다. 여래상은 長身의 키에 원형의 頭光만을 지니게 되며, 대의는 몸에 밀착되어 허리·배·다리 같은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이 유행을 한다 도 15. 머리는 육계가 낮고 얼굴이 둥글고 통통하며 이목구비가 작아서 마치 남인도나 동남아 계통 불상을 보는 듯한 상이 많다. 대의 표현은 전형적인 인도 굽타식 통견과 남인도 계통의 편단우견 형식, 그리고 서역 계통의 형식도 모두 표현되고, 또한 이러한 바탕 위에 여러 가지 변용을 시도한 형식도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옷주름은 가는 음각선 아니면 도드라진 융기선으로 몸의 굴곡을 드러내며 표현한 예가 많고 옷주름을 전혀 표현하지 않은 상도 많다. 偏袒右肩 像 중에는 완벽하게 남인도나 동남아시아 불상을 재현하고 있는 듯한 상도 있다 도 16. 또한 몸에 彩繪와 금박을 칠한 상도 많은데 붉은색 가사에 옷주름 대신 水條가 그려지고 그 안에 그림을 그린 盧舍那法界人中像도 있다. 수인은 손이 잘린 상이 많지만 대체로 施無畏 與願印이거나 옷자락을 잡고 있었던 듯하며 지물을 들고 있는 예는 없다.

단독 佛坐像들은 상체가 길고 몸이 뭉뚱하며 자세는 結跏趺坐像과 倚坐像 등이



도 17
靑州 龍興寺址 출토
석조반가사유상.
北齊, 청주시박물관

있다. 착의 형식도 편단우견과 통견 등 다양하고 좌불의 대좌는 仰蓮座이어서 일반적인 북제양식에 근접하고 있다. 전통적 산동 수대 여래좌상 같은 裳懸座 여래좌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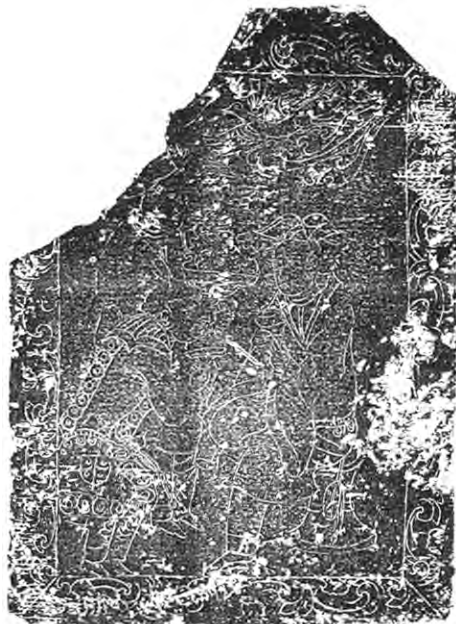
단독 보살상들도 그 예가 매우 많은데 보관이나 장신구 등이 보다 다양해진다. 그러나 보살상의 경우는 동위대와 북제대의 상이 여래상에서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다소 어렵다. 직립의 자세에 어깨에 천의를 피건처럼 입고 몸 앞에서 천의가 X형으로 교차되며 다시 그 위에 X형 영락을 늘어뜨리고 있는 표현 등은 북제대에도 지속되는 전통적 표현이다. 북제대 보살상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하체가 보다 길어져 늘씬한 신체 비례를 보인다가나 몸의 환미감이 진전되어 팔과 허리 사이의 공

간이 완전히 분리되고 옷이 밀착되어 환조로서의 입체감을 획득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三面寶冠이 새로이 나타난다던가 천의가 몸 옆으로 뻗치지 않고 붙어서 길게 늘어지고, 치마 위로 腰帶나 綬 같은 다양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표현 등이다. 그러나 이들 북제대로 추정되고 있는 보살상 중에는 산동의 타산석굴이나 운문산석굴의 수대 보살상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작시기가 수대로 내려갈 수 있는 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고찰로 보건대 북제대 보살상들은 여래상만큼 인도적인 양식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기보다는 동위대 이래의 전통적인 표현이 좀더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이 시기 중국의 다른 지역 보살상들과 구별되는 양식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용흥사지 불상 중에는 半跏像도 1점 포함되어 있다 도 17. 머리에 원형 장식과 술장식이 붙은 높은 보관 쓰고 있으며, 상반신은 나신으로 목걸이와 어깨에 둥근 장식만 착용하고 있다. 상체를 거의 직립으로 하고 있어서 굽힌 오른팔의 팔꿈치 밑에 받침대를 대고 있다. 가슴이 편평한 편이고 반가한 다리도 입체감이 없이 경직된 자세여서 양식면에서는 동위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허리에는 몸 앞으로 띠가 늘어져 있고, 양쪽에는 채색으로 玉環이 달린 腰佩垂飾을 표현하고 있다. 요패수식은 한국 반가상의 중요한 특징

으로 그 동안 중국 반가상에서는 요 패수식이 있는 예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따라서 용흥사지 반가상은 요 패수식의 원류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²⁷ 반가한 다리 밑에는 접혀 들어간 옷자락 표현이 없이 치마가 짧게 대좌를 덮고 있다. 대좌는 가운데가 잘룩한 장고형의 높은 대좌로 대좌 중간에 용이 부조되어 있고 그 입에서 나온 연꽃형 足座에 왼발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장고형 대좌는 북제대 청주 지역에서 유행을 한 듯 青州 傅家村 北齊代 石室墓의 線刻畫에서도 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²⁸ 그



도 18
青州 傅家村 石室墓
線刻畫, 北齊

림의 내용은 墓主가 머리가 곱슬곱슬한 이국적 모습의 西域 商人과 상담을 하는 장면으로 묘주가 걸터앉은 의자가 바로 장고형이다 도 18. 이 석실묘의 墓主는 생전에 동서무역에 종사한 상인이었던 듯, 그림 중에는 이 외에도 많은 물건을 실은 낙타라든가, 사리탑을 운반하는 코끼리, 또는 서역인이나 중앙아시아인 같은 수행인 등이 그려져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마치 반가상의 요패수식처럼 묘주의 허리띠에서 주머니가 달린 장식띠가 대좌 옆으로 늘어지고 있는 표현이다. 이는 불교의 보살상이나 반가상에 표현된 장신구들이 당시의 세속 장신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예이다.

또한 이러한 동서교역을 증명하는 석실묘 벽화는 북제대 청주 지역에서 인도풍이 농후한 불상양식이 유행하게 된 근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박흥이나 제성, 청주 용흥사지 등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동위대 내지 북제대의 인도풍이 농후한 상들은 중국조각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떠한 역사 배경 속에서 조성되었고 또 중국조각사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

²⁷ 大西修也, 「山東省青州出土石造半跏像と韓國半跏像」; 大西修也, 「山東省青州出土石造半跏像の意味するもの」.

²⁸ 夏名采, 「益都北齊石室墓線刻畫像」, 『文物』(1985. 10), pp.49-54. 墓主의 卒年은 武平 4년(573)이다.

쳤는가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근래에 四川省 成都 萬佛寺 址 출토의 인도풍이 농후한 양대 불상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6세기 초반 이후 남방 해로를 통한 남인도 내지는 동남아 계통 불교문화의 중국 전래 문제, 또는 이후 남조 양대 불교문화의 북조 지역에 미친 영향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청주 지역 석조상들의 조성 배경으로 남조 지역과의 관련성이 거론되기도 한다.³⁰

산동성 불상은 기본적으로 北朝 불상에 속하는데, 따라서 이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南北朝時代 북조와 남조의 불상양식의 규명이라고 하는 대명제의 한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산동성은 남인도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오는 남방 해로의 종착 지로서 6세기 전반 해로를 통한 불교미술의 전파, 또는 남조미술의 북조로의 영향 등의 커다란 물결을 내륙의 어떤 지역보다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이에 산동성 불상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바탕으로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6세기 전반 남북조 불상양식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산동성 불적에 보이는 인도풍의 양식이 남조를 통해서 전해진 것인지 아니면 해로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전해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북제대의 산동성 석조상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사천성 만불사지 불상에 연결되기보다는 동남아시아나 남인도 불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며, 또는 중인도나 서역 계통 불상의 특징을 보이는 像까지도 혼재되어 있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으로 보살상의 경우는 동위대 이래의 보수적인 전통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보다 다각도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산동성 출토 석조상들은 중국조각사에서 建康을 중심으로 한 남조 중심지역의 불상 자료가 매우 드문 현재로서 海路를 통한 불교문화의 수용 문제를 해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다.³²

²⁹ A. Soper, "South Chinese Influence on Buddhist Art of the Six Dynasties Period," *The Bulletin of the Museum for Far Eastern Antiquities* No.32 (Stockholm, 1960); 岡田健, 「北齊樣式の成立とその特質」, 『佛教藝術』 159(1985); 金春實, 「中國 北齊・周 및 隋代 如來立像 양식의 전개와 특징」, 『美術資料』 53(1994. 6); 정예경, 『중국 북제・북주 불상연구』(해안, 1998).

³⁰ 楊泓, 「龍興寺造像和青州考古」, 『山東青州龍興寺出土佛教石刻造像精品』 중국역사박물관 특별전도록 (1999. 7), pp.26-27. 南朝에서 山東으로 이주해 온 崔氏의 墓室인 北齊 天保 2년(551) 青州 臨朐 海乳山 崔芬墓의 벽화 중에 南朝에서 유행한 소위 竹林七賢을 테마로 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점을 들고 있다.

³¹ 이를 '青州 루트'라 부르며, 이 항로는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연결된다.

³² 宿白, 「青州龍興寺佛藏所出佛像的几个問題」, 『山東青州龍興寺出土佛教石刻造像精品』 중국역사박물관 특별전도록(1999. 7) pp.16-17. 『梁書』, 『廣弘明集』 등을 보면 梁武帝가 신봉한 荊州 長沙寺瑞像, 荊州 大

한편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교미술의 해명에도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백제의 경우는 해로를 통해 남조와 북조의 불교문화를 전수받고 있으므로 그 중심에 함께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불상과 남조 불상, 삼국시대 불상과 북조 불상, 그리고 산동성 불상과의 관련을 규명하는 일은 삼국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의 필수 과제를 알 수 있다.

三國時代 불상과의 비교

高句麗 불상과의 비교

고구려 불상 중에서 산동성 불상과 비교될 수 있는 예는 주로 6세기 불상들로, 禪定印 여래좌상과 一光三尊佛 형식의 상들이 있다. 먼저 고구려의 선정인 불상들

중에서 특히 傳 黃州 출토 禪定印 여래좌상은 黃石崖石窟이나 1988년 諸城 출토 石像 등 선정인여래좌상과 옷주름 표현이 비슷하다 도19. 옆으로 넓은 방형대좌에 앉아서 대의 밑자락을 대좌 앞으로 수직으로 넓게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은 매우 흡사하다 도10. 이와 같은 선정인 상은 이른 시기 산동 지역에서 널리 유행을 보이는데, 단지 산동 지역에서는 여러 구가 함께 표현되는 데 비해서 고구려의 경우는 단독상으로 조성된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一光三尊佛像은 특히 고구려 6세기 금동불상 중에 그 예가 많은데, 산동성의 경우도 북위-동위대에 금동불뿐 아니라 석불에서도 많은 유행을 보이며 양식면에서 가장 깊은 연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독존상인 延嘉 7年銘 금동여래입상은 산동성의 북위대 불상이 적기는 하지만 황석에 대굴의 여래입상 도3이나 1988년 제성 출토의 석조 여래입상 같은 북위대 상과 비교된다.³³ 주형광배의 전체 윤곽이나 두터운 대의 끝자락을 왼쪽 팔뚝 위로 넘기는 북위식 착의법, 특히 배 앞으로 늘어지는 옷주름을 깊고 날카롭게



도 19

傳 黃州 출토 석조여래좌상

明寺瑞像, 丹陽 龍光寺瑞像 등은 天竺에서 온 阿育王像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강남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인도계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³³ 杜在忠·韓崗, 康培仁 譯, 「山東省諸城出土的石佛像について(2)」, 圖 4 참조.



도 20
辛卯銘 금동삼존불상,
고구려 571년

조각한 표현 등에서 상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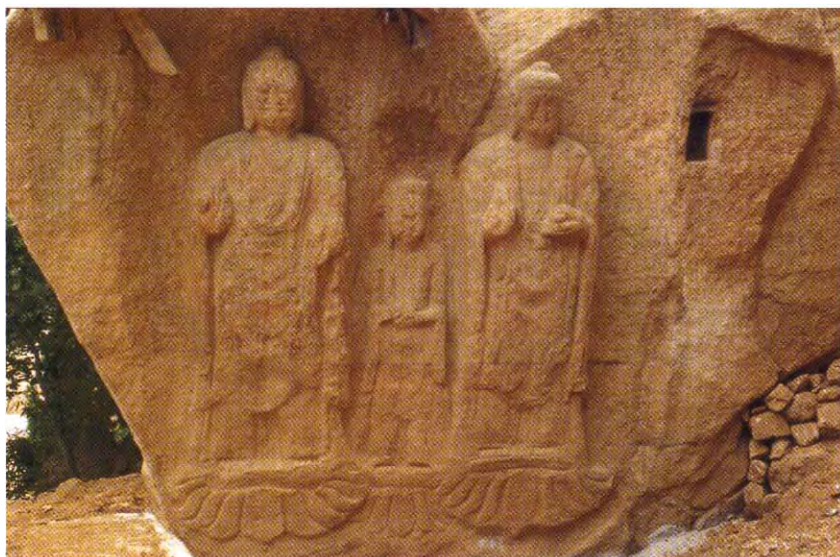
일광삼존상은 6세기 불상 중에 그 예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癸未銘 금동삼존불상, 辛卯銘 금동삼존불상, 建興銘 금동광배, 永康 7年銘 금동광배 등 고구려의 상이 가장 많고, 백제 상으로 捧寶珠 협시보살상만 남은 傳普願寺址 출토 금동삼존불상, 定林寺址 출토 석조삼존불상, 鄭智遠銘 금동삼존불상 등이 있다. 신라는 그 예가 가장 적은데, 시기도 다소 내려가는 경주박물관 소장 금동삼존불상 등이 있다. 이들 외에도 제작 국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傳 춘천 출토 금동보살삼존상,

甲寅銘 금동광배 등이 있다.

이들 중 특히 고구려와 신라의 일광삼존불상들이 1978년 諸城 林家村에서 출토된 2구의 금동삼존불상들이나 산동성 曲阜 출토 天保 7年銘(556) 금동삼존불상, 그리고 산동성과 인근한 徐州市 출토 天保 3年銘(552) 금동삼존불상 같은 산동성 일대의 금동상들과 양식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보임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³⁴ 광배 중에 飛龍이 표현되지 않고 화염 중에 화불이 있는 형식이나 족좌가 높은 복련의 대좌 형식, 그리고 여래상이나 보살상의 착의 형식 등은 중원 지역의 북위나 동위대의 일광삼존불상들뿐 아니라 산동성의 석조일광삼존불상에 비해서도 매우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묘명 삼존불상은 불신에 보이는 환미감이나 특히 대의의 끝단이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는 새로운 착의 형식 등이 제정 출토 동위대 금동삼존불상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³⁵ 이 집은 濟南의 朗公寺에 고구려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산동성과 고구려

³⁴ 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吉川弘文館, 1995), 도판 402b, 405 참조.

³⁵ 金春實, 「三國時代 如來立像 樣式의 展開 -6세기 말-7세기 초를 중심으로」, pp.14-19. 이 글에서 辛卯銘像을 諸城像이나 北魏 永熙 3년명 石造三尊佛像과 같은 계통의 상으로 파악하였다.



도 21
泰安 마애삼존불상,
백제 6세기 말

와의 관련성이 뒷받침이 된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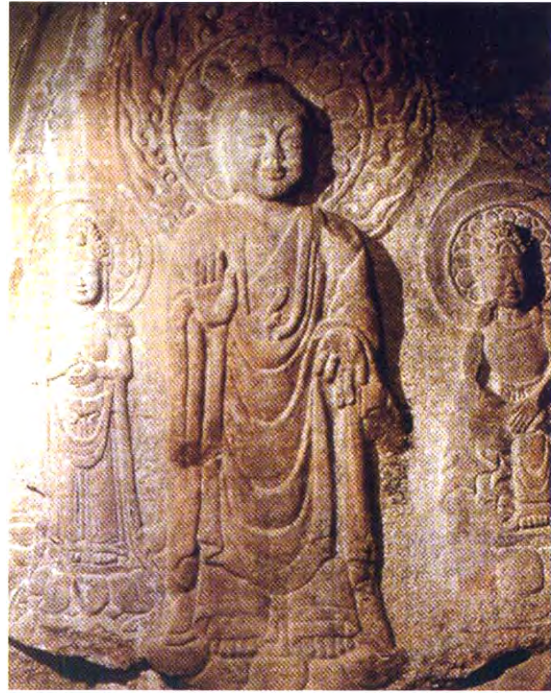
그러나 다시 세부적으로 고구려의 일광삼존불상들을 살펴보면, 계미명 금동삼존불상과 같은 대부분의 상들은 양식적으로 산동성의 동위대 상들보다 북위식에 가까운 고식적 요소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래상과 보살상의 옷이 아직 두텁고 옆으로 뻗침이 심하며, 협시보살상들의 천의도 산동에서 동위대에 유행된 X형 천의 위에 다시 X형 영락을 걸치는 형식이 아니라 고식의 X형 천의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고구려의 일광삼존불상들은 산동성 금동불상의 영향에 앞서서 이미 북위양식 내지는 중원의 고식 동위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되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한편 백제의 일광삼존불상 중 협시보살상이 봉보주보살상인 전 보원사지 출토 상의 경우는 산동성 불상과의 관련이 고구려상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원명 삼존불상과 신라 일광삼존불상의 경우는 관련성은 있으나 조형성이 약하다.

百濟 불상과의 비교

백제와 산동과의 관련은 泰安 磨崖佛이나 瑞山 磨崖佛이 있는 서해안 지역이 중국과 통하는 관문임을 들어서 자주 거론되어 왔다(도 21, 22). 그러나 필자는 백제의 마애불과 산동

³⁶ 『續高僧傳』, 『釋僧意傳』.



도 22
瑞山 마애삼존불상,
백제 7세기 초

의 석굴사원이 특히 삼존불의 형식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³⁷ 이는 앞에서 산동성의 불적을 개관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의 마애불과 양식적으로 연결되는 동위나 북제대에는 산동에서 석굴사원의 조성이 활발하지 않고, 이후 수·초당대의 석굴사원에서는 선정인이나 아미타인의 좌불을 본존으로 하는 아미타삼존불이 유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 마애불은 산동성의 어느 한 석굴사원의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새로운 북제나 수대 불상의 영향을 널리 반영하면서 한편으로 동위나 또는 백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남조의 고식 양식을 오래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제 마애불에 모두 등장하는 捧寶珠菩薩像은 이런 南朝 진통을 잘 보여준다.³⁸

그런 면에서 백제 마애불이 산동의 동위대 석조삼존불상이나 나아가 북제대 석상들과 널리 비교되는 점은 주목된다. 특히 본존불입상의 경우 佛身에 양감이 풍만해지고

³⁷ 金春實, 「百濟彫刻의 對中交涉」, 『百濟美術의 對外交渉』(예경, 1998), pp.79-129; 金春實, 「百濟 7세기 佛像과 中國 佛像」, 『先史와 古代』(2000, 12), pp.27-60.

³⁸ 金理那, 「三國時代의 捧持寶珠形菩薩立像 研究—百濟와 日本의 상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37(1985, 12),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일조각, 1989), pp.85-143에 재수록.

옷주름이 정돈되는 등 복제양식의 영향이 보이지만, 착의 형식은 대의 속으로 띠매듭이 보이고 끝자락은 어깨 뒤로 넘겨지면서 옷주름이 한쪽으로 치켜 올라가는 고식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산동의 동위대 여래입상들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제성이나 용흥사지 출토의 동위대 불상들을 보면 일광삼존불상이 유행을 하며 같은 시기의 중원의 상들보다 이르게 불신에 양감이 드러나고 또한 여래상의 착의법에 변화를 보이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河北省이나 山西省 같은 북조의 중심지에서는 동위대에는 고식의 복위양식이 지속되고, 북제대가 되면 인도 불상양식의 전면 등장으로 여래상의 착의법에서 옷고름 같은 표현은 볼 수 없다.



도 23
扶餘 佳塔里 출토
금동여래입상,
백제 6세기 말

그런데 이와 같은 착의 형식은 서해안 지역의 마애불에 앞서서 이미 부여 가탑리 출토 금동여래입상이나 예산 사면석불 등에서 보이며, 더 나아가 6세기 말 이후 삼국 모두의 여래상에서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도 23}. 필자는 이러한 착의 형식의 원류를 6세기 이후 인도 불상의 영향을 새롭게 받고 있는 남조 梁代 불상에서 구하여, 고구려의 辛卯銘 삼존불상의 경우는 남조에 인근한 지역에서 출토된 北魏 永熙 3年銘 삼존불상과 비교하고, 백제의 가탑리 출토 여래입상은 사천성 성도 만불사지 출토 梁 中大通 元年銘(529) 석조여래입상과 비교하여 각각의 양식 특징을 설명한 바 있다.³⁹ 이로 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이와 같은 착의법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수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동성 불상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당시 아직 용흥사지 불상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1978년 제성 출토 동위대 금동삼존불상과 1988년 제성 출토 석조삼존불상을 각기 고구려와 백제의 상과 비교하며,⁴⁰ 전체적으로 6세기 海路를 통해 전해진 인도식이 농후한 남

³⁹ 金春實, 「三國時代 如來立像 樣式의 展開—6세기 말-7세기 초를 중심으로」, pp.19-29.

조 양대 불상양식의 확대과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靑州 龍興寺址에서도 인도풍, 특히 동남아시아풍의 불상들이 대량으로 발견됨으로 인해, 산동성의 불상과 사천성 成都 萬佛寺址 불상을 아우르는 6세기 전반 중국조각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백제 마애불을 포함하여 6세기 말 이후의 여래입상 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상은 가탑리 출토 금동여래입상과 예산 사면석불상이다. 이 중 가탑리 출토 불상은 대의 앞단이 가슴까지 올라가고 옷주름도 몸 전체를 넓게 덮고 있어서 사천성 출토 양 중대통 원년명 여래입상 같은 남조 불상과 관련을 보인다. 이처럼 가탑리 출토 여래입상의 인도 불상적인 경향은 이 가탑리 상의 도상을 이어서 일본에서 유행한 소위 善光寺式 여래입상에 관한 전설 속에서도 찾아진다. 일본에서는 이 가탑리 상과 도상적으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소위 ‘善光寺式 如來立像’이라는 불상 유형이 유행하는데, 전설상이지만 이 善光寺式 불상 또한 멀리 동인도로부터 백제를 경유하여 일본에 비천하여 온 불상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인도 불상적인 경향이 이곳에 드러나고 있다.⁴¹

반면에 대의 앞자락이 깊게 파이고 옷주름이 두텁게 조각되어 고식의 상처럼 보이는 예산 사면석불 여래입상은 영희 3년명 삼존불상이나 용흥사지 동위대 석조삼존불상 같은 상들과 비교된다.^{도12, 14} 전의 논고에서는 예산 상이 가탑리 상의 대의 특징을 받아들면서도 양식상 고식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상으로 파악하였는데,⁴² 오히려 영희명 상과 같은 梁代 불상의 영향을 일찍 받고 있는 불상들과 관련짓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산 사면석불은 석주형의 전체 모습에서도 북조의 석굴사원 상들과 연결된다.⁴³

다음 태안 마애불은 이번 산동성 불적을 고찰하면서 가장 새롭게 주목되었던 불상이다. 이곳은 서해에 면한 위치나 두 구의 거대한 여래입상과 그 사이에 작은 봉보주보살상이 있는 독특한 삼존불의 구성 등으로 인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⁴⁴ 이곳의

⁴⁰ 杜在忠·韓崗, 康培仁 譯, 「山東省諸城出土의 石佛像について(2)」, 挿圖 6 참조.

⁴¹ 大西修也, 「百濟佛立像と一光三尊佛形式—佳塔里廢寺址出土金銅佛立像をめぐって」, 『Museum』 315(1977. 6); 金煥泰, 「善光寺緣起를 통해 본 百濟의 諸觀音經信仰과 그 日本 傳授—百濟佛敎의 日本傳授考 1」, 『佛敎學報』 19(1982). 일본 長野市에 있는 善光寺의 창건연기를 담은 책이 「善光寺緣起」인데, 이곳에 이르기 善光寺의 生身如來는 옛날 동인도의 비사리성 月蓋長者의 청으로 사바세계에 내현하신 본존 불로 이 부처가 百濟를 거쳐 日本에 비천한 것이라 하고 있다.

⁴² 金春實, 앞의 글.

⁴³ 文明大, 「百濟四方佛의 起源과 禮山石柱四方佛像의 研究」, 『韓國佛敎美術史論』(民族史, 1987)

⁴⁴ 黃壽永, 「泰安의 磨崖三尊佛像」; 文明大, 「泰安 百濟磨崖三尊佛像의 新研究」, 『佛敎美術研究』 2(1995).

여래입상은 앞의 상들과 모습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장신의 키에 특히 어깨가 넓고 풍만한 것이 특징이다.⁴⁵ 얼굴 또한 크고 둥글며 반면에 육계는 작아서 매우 특이하다. 대의는 옷주름이 굵은 종단형으로 넓게 잡혀서 풍성하며 양팔에 걸쳐진 대의 자락은 몸 옆으로 길게 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불신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북제양식의 영향이지만, 장대한 외관과 두상의 특징 등은 濟南 龍洞 西洞 안의 西壁 여래입상이나 청주 용흥사지의 북제대 여래입상 같은 새로운 인도풍의 불입상을 모델로 하여 조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⁵ 물론 산동성 불상 중에는 두 여래상 사이에 봉보주보살상이 있는 삼존 불의 예는 없지만, 앞으로 양식이나 도상 모든 면에서 산동 불상과의 관련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산 마애불의 여래입상은 기본적으로 태안 마애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지만, 신체의 비례가 보다 작달막해지고 불신의 양감이 부드러워져서 전형적인 북제양식에 더욱 근접해 있다. 협시보살상인 반가사유상도 불신에 양감이 있고 반가한 자세가 자연스러운 점에서 청주 용흥사지 출토 반가상보다는 하북성 등의 북제양식 반가상과 비교된다. 용흥사지 반가상이 중국상으로는 드물게 허리 양 옆으로 玉環이 달린 요패수식을 늘어뜨리고 있어서 한국 반가상의 원류로 거론되기도 하지만,⁴⁶ 높은 대좌에 앉은 불안정한 자세와 경직된 신체 표현은 백제의 반가상과 구별된다. 한편 봉보주보살상과 더불어 내부에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보주형 두광은 梁 中大同 3年銘 觀音菩薩像 같은 사천성 석상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어서 남조 불상의 전통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서산마애불은 앞 시기의 남조 불상의 전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원의 북제 불상양식이 반영되어 있는 상으로 판단되지만, 태안마애불과의 관련을 생각해 볼 때 산동과의 관련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번 산동성 불적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목되었던 백제 상은 정유 출토의 석불입상 2구이다.^{47, 48} 이 상들의 발 아래 폭이 좁은 삼각형 족좌와 그 밑에 달린 긴 축의 형태나 편단우견 대의가 몸에 밀착된 왼쪽 상의 모습은 청주 용흥사지의 북제대 편단우

12) pp.1~25. 左右 如來佛을 釋迦와 多寶佛로 비정하는 가운데 捧寶珠菩薩像은 이 두 불상은 연결해 주는 彌勒菩薩로 보고 있다. 姜友邦, 「泰安白華山磨崖觀音三尊佛考—百濟 觀音道場の 成立」, 『百濟의 中央과 地方』 백제연구논총 5집(충남대 백제연구소, 1997), pp.169~186. 태안 마애불이 있는 산의 이름이 白華山 즉 『華嚴經』 「入法界品」에 등장하는 觀音의 주처인 포타라가삼위에 주목하여 『華嚴經』에 의한 관음도 광엄을 제시하고 있다.

⁴⁵ 文明人, 위의 글, p.13. 대답하고 장대한 불상양식이라 하여 '태안마애불 양식' 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⁴⁶ 大西修也, 「山東省 青州出土 石造半跏像と韓國半跏像」.



도 24
井邑 所營面 출토
석조여래입상, 백제 7세기

견 상들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정음의 상들은 그동안 백제 불상에서는 매우 특이한 상으로 편단우견상이라는 점에서 신라에서 7세기 초반에 유행한 편단우견 금동불입상들과 비교되었다.⁴⁷⁾ 이 신라의 편단우견 상들은 뒤에서 신라 불상과 산동 불상과의 관련을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청주 용흥사지에서 다량으로 편단우견 불입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특이한 상이었다. 이 편단우견 여래입상은 남인도 안드라 왕조에서 유행한 불상형으로 이후 실론, 내지는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고, 6세기 전반에는 중국에도 전해져 남방 해로를 통해 전해진 불교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⁴⁸⁾ 오른쪽 상은 시무의인을 한 손이 몸 가운데로 오고 대의의 폭도 넓어서 앞 시기 양식이 남아 있다. 두 불상들이 처음에 어떠한 형식으로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백제와 산동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생각된다.⁴⁹⁾

다음은 본격적으로 수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익산 연동리 석불좌상이나 7세기 금동보살상들을 중심으로 백제 불상과 산동 불상과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동리 석불좌상은 상체가 길쭉하고 결구부좌한 다리의 폭이 넓으며 방형대좌를 덮고 있는袈裟의 주름선이 도식적인 점 등 전형적인 수양식을 보이나, 타산석굴이나 운문산석굴의 본존상 같은 산동성의 전형적인 여래좌상들과는 수인이나 착의법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수대 산동성의 여래좌상의 가장 큰 특징은 선정인이나 아미타인의 수인을 하고 대의의 왼쪽 가슴에 삼각형 장식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연동리 석불좌상에서는 그와 같은 특징들을 볼 수 없다.

7세기의 공주 의당 출토의 금동보살입상이나 부여 규암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이

⁴⁷⁾ 鄭明浩, 「정음 부채맹이 石佛立像 二軀」, 『佛敎美術』 7(1983); 金春賢, 「三國時代의 金銅藥師如來立像 研究」, 『美術資料』 36(1985, 6).

⁴⁸⁾ 金春賢, 위의 글.

⁴⁹⁾ Tanabe Saburosuke, "From the Stone Buddhas of Longxingsi to Buddhist Images of Three Kingdoms Korea and Asuka-hakuho Japan," *Transmitting the Forms of Divinity—Early Buddhist Art from Korea and Japan*, Published by Japan Society (New York, 2003), p.52.

전까지의 봉보주보살상과 다르게 보관에 화불이나 장병이 표현되고 持物로 연봉과 정병을 들고 있는 전형적인 수양식을 반영하는 보살상들이다. 목걸이와 영락이 굵고 화려해지고 X형으로 길게 몸의 앞과 뒤로 늘어져 있다. 그러나 보관이나 영락 장식이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이어서 산동성 수대 보살상들의 다양하고 화려하며 한편 세속적이기까지 한 보살상들과는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예는 없다.

新羅 불상과의 비교

신라는 眞興王代가 되어야 한강유역을 통해 중국과의 직접 교섭에 나서게 된다. 진흥왕은 처음에는 梁이나 陳 등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서 불교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564년에는 북조국가인 北齊에도 조공을 하게 되고 이후 적극적으로 중국문물의 수용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신라 불상에서 중국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7세기 이후이다.⁵⁰

7세기 이후 신라 불상 중에서 특히 산동과의 교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불상은 偏袒右肩의 金銅如來立像들이다.⁵¹ 扁단우견의 대의 형식뿐 아니라 농염한 三屈의 자세, 그리고 오른손에 보주형 지물을 들고 있는 특징 등이 매우 이색적인데, 고구려나 백제의 불상들 중에는 그 예가 전혀 없고 오직 신라 금동불상 중에 宿水寺址 출토 像 3점을 포함하여 皇龍寺址 출토 金銅藥師如來立像 등 약 15점 정도가 전해져서 신라에서 독자적으로 받아들였던 불상형으로 알려지고 있다.⁵² 그런데 이 상들과 비교되는 중국의 예도 없어서 天保 9年銘(558) 佛像 같은 북제대의 상 몇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을 수 없고,⁵³ 오히려 남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상들과 직접 비교되어서 남해 해로상에서 유행한 인도풍이 농후한 상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산동성의 박흥, 제성, 청주 용흥사지 등지에서 이들 扁단우견 상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신라의 상들과 비교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주 지역의 扁단우견 상들 중에는 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상은 없어서, 신라 상과 도상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扁단우견 상으로 손에 보주를 든 상은 현재 신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法顯의 『佛國記』에 獅子國, 즉 현재 실론의 대표적 사원인 無畏山寺의 주존불이 오른손에 寶珠를 든 靑玉像이었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흥미롭다.⁵³

⁵⁰ 金春實, 「7世紀 前半 新羅 佛像樣式의 전개와 특징」, 『美術資料』 67(2001).

⁵¹ 金春實, 「三國時代의 金銅藥師如來立像 研究」.

⁵² 金春實, 위의 글, 도 22 참조.

도 25
慶州 皇龍寺址 출토
금동여래입상, 신라 7세기



혹시 이러한 상이 신라 편단우견 상의 원류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짐작된다. 그런데 숙수사지 출토 상이나 황룡사지 출토 상 같은 신라의 상들은 청주 용흥사지의 편단우견 상들에 비해 三屈의 자세가 보다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용흥사지 출토 상들의 경우 팔이 잘린 예가 많아서 확인이 잘 안되지만 신라상들 가운데는 인도 불상의 한 특징인 대의자락을 왼손에 쥐고 있는 상도 몇 점 있어서 더욱 인도 불상에 가까운 표현을 보인다. 이로 보면 신라의 편단우견 상들은 산동을 통해서 전해졌다고보다는 해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신라에 전해진 상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이에 다시 주목되는 것은 『三國遺事』 권3 「皇龍寺丈六」條의 기

사로 진흥왕대 인도 阿育王이 배에 태워 보낸 황금과 석가삼존불에 의거해 불상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이다.⁵³ 이로 보면 황룡사의 불상도 海路를 통해서 전해진 이국적인 모습의 상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이처럼 최근에 산동 지역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는 인도나 동남아시아풍의 불상들은 「皇龍寺丈六」條 같은 내용이 단순히 전설상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해로를 통한 교류가 생각보다 활발하였음을 알려준다.

眞平王代 이후에는 신라의 對隋, 對唐 통일외교가 가속화되면서 수도인 長安의 불교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듯, 경주배동 석조삼존불상 같은 7세기 중엽경의 신라 불상들은 山東의 수양식 상들과 연결된다기보다는 전형적인 장안 지역의 수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⁵³ 法顯, 『佛國記』 第37, 38章.

⁵⁴ 金理那,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 佛像」, 『長壇學報』 46·47(1979. 6), pp.195-215.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88), pp.61-84에 재수록.

맺음말

이상으로 삼국시대에 對중국 교섭의 중국측 관문으로서 중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둥성의 불적들을 살펴보고 이를 삼국시대 불상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산둥성의 불적은 이미 駝山石窟이나 雲門山石窟 등이 隋代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최근 일반 사원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 불적들이 많아서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博興이나 諸城, 그리고 靑州 龍興寺址 등지에서 발견된 불상들 중에는 그 동안 중국 불상들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인도풍이나 동남아시아풍의 불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海路를 통해 수용된 불교문화의 寶庫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 동안 6세기 전반 해로를 통한 불교문화의 수용 문제는 관련 불상들이 주로 사천성 成都 萬佛寺址에서 출토된 불상 중에 몇 구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고, 建康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된 예가 없어서 제한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成都에서 다시 완전한 굽티풍의 불상들이 여러 점 새롭게 발견되면서 그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⁵⁵ 이러한 시점에서 산둥성 창주 용흥사지에서 대량으로 인도풍의 불상들이 발견되면서 이 문제는 최근 중국조각사 연구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되었다.

이 논의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6세기 전반 해로를 통한 불교문화의 수용에서 四川省 지역 불상과 山東省 불상과의 관련 문제라든가, 또는 이들 지역 상들과 다른 북조 지역 상들과의 관련 문제 등이다. 특히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개괄적이거나 위에서 산둥성 불적을 살펴보는 가운데 생각되는 바는 사천성 불상과 산둥성의 불상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시기적으로도 남방 해로 불교문화의 영향이 사천성 불상에 비해서 산둥성 불상에 늦게 나타나며 그 성격도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동위대의 산둥성 불상들은 물론 다른 북조 지역 불상들에 비하면 이르게 남방 해로의 영향이 불신이나 착의 형식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사천성 지역 양대 불상과 직접 연결되기 보다는 하남성 같은 남조에 인접한 지역의 상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직 남방 해로 문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⁵⁵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成都市西安路南朝石刻造像清理簡報」, 『文物』(1998, 11), pp.4-20.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제대가 되면 사천성 지역뿐 아니라 響堂山石窟 같은 당시 수도 인 業 지역의 불상들과도 비교되어야 하겠지만, 이 시기의 산동성 불상은 그러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어 독자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천성의 인도계 불상은 기본적으로 굽타양식을 반영하고 있고 남인도풍의 양식은 일부 옷주름의 표현에서만 보이는데 비해, 산동성의 경우는 남인도나 동남아 계통의 通肩과 偏袒右肩 불상뿐 아니라 서역 계통으로 보이는 상들도 표현되고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佛頭도 사천성은 굽타형의 길쭉한 불두인데 비해 산동성의 불두는 동그란 동남아시아형 불두가 많아서 서로 계통이 다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6세기 전반 해로를 통한 불교문화의 수용 문제는 建康을 중심으로 한 남조 중심지역의 불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재로서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남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다음 산동성 지역과 우리나라 三國時代 불상과의 관련 문제를 정리해 보면, 특히 南北朝 불상양식과 관련하여 百濟의 海路를 통해서 남조와 북조의 불교문화를 전수받고 있었으므로 산동성과 더불어 이 논의의 중심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산동성과 가장 인접해 있으므로 관련성 여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산동성의 불교문화는 삼국시대 불교문화에 직, 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고찰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구려 불상의 경우는 6세기 禪定印像과 一光三尊佛形式 상들에서 산동성 불상과의 관련이 나타나므로 삼국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금동일광삼존상의 경우 보다 고식의 북조양식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백제 불상의 경우 이번 산동성 불적을 고찰하는 가운데 특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西海에 면한 지역에 있는 磨崖佛의 조성배경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백제가 南朝 불교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산동성 불상과의 관련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백제의 중국 불교문화 수용 문제는 서산 지역의 마애불을 포함하여 넓게 해로 문화의 전파 과정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四川省이나 山東省 양 지역 불상들과의 좀더 세밀한 비교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남조 불교문화와의 관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바와 같고, 산동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如來像의 服制 문제가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주 용흥사지 북제대의 인도풍 불상과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불상으로는 태안

마애삼존불상과 정음의 편단우견 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新羅와 산동성 불상과의 관련은 偏袒右肩 如來立像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이 역시 남방 해로 문화의 전파 과정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라의 편단우견 여래입상들이 산동성 불상들보다 농후하게 인도 불상의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海路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해진 상이 아닌가 추정하였다.

■ 주제어(key words): 山東省(Shandong Province), 青州 龍興寺址(Qingzhou Longxing Temple Site), 海路(Silk Road by Sea), 泰安 磨崖三尊佛像(Cliff Rock Triad of Tae'an), 金銅一光三尊佛像(Gilt-bronze Triad), 偏袒右肩 如來立像(Standing Buddha with the Nuded Right Shoulder)

참고문헌

- 姜友邦, 「泰安白華山磨崖觀音三尊佛考—百濟 觀音道場の 成立」, 『百濟의 中央과 地方』 백제 연구논총 5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7.
- 郭東錫, 「金銅製—光三尊佛의 系譜—韓國과 中國 山東지방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51, 1993. 6.
- 金理那,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제4회 전국미술사학대회, 예경출판사, 1996.
- (『韓國古代佛教彫刻 比較研究』, 文藝出版社, 2003에 재수록)
- 金春寶, 「中國 北齊·周 및 隋代 如來立像 樣式의 展開와 특징—특히 如來像의 服制와 관련하여」, 『美術資料』 53, 1994. 6.
- _____, 「三國時代 如來立像 樣式의 展開—6세기 말~7세기 초를 중심으로」, 『美術資料』 55, 1995. 6.
- _____, 「百濟 7世紀 佛像과 中國佛像」, 『先史와 古代』 15, 2000.
- _____, 「7世紀 前半 新羅 佛像樣式의 전개와 특징」, 『美術資料』 67, 2001. 12.
- 文明大, 「泰安 百濟磨崖三尊佛像의 新研究」, 『佛教美術研究』 2, 1995. 12.
- 梁銀景, 「中國 駝山石窟 佛教彫刻에 대한 考察」, 『佛教美術研究』 2, 1995. 12.
- 정예경, 『중국 북제·북주 불상연구』, 해안, 1998.
- 黃壽永, 「瑞山百濟磨崖三尊佛像」, 『震檀學報』 20, 1959. 8.
- (『韓國의 佛像』, 문예출판사, 1989에 재수록)
- _____, 「泰安의 磨崖三尊佛像」, 『歷史學報』 17·18, 1962. 6.
- (『韓國의 佛像』, 문예출판사, 1989에 재수록)
- 杜在忠·韓崗, 「山東諸城佛教石造像」, 『考古學報』 113, 1994. 2.
- 劉鳳君, 『山東佛教藝術』, 藝術家出版社, 2001.
- 張恩, 「山東歷城黃石崖磨崖龕窟調查」, 『文物』, 1996. 4.
- 中國歷史博物館·山東青州市博物館, 『山東青州龍興寺出土佛教石刻造像精品』 중국역사박물관 전시회 도록, 1999. 7.
- 青州市博物館 編, 『青州龍興寺佛教造像藝術』, 山東美術出版社, 1999.
- 松原三郎, 「山東省出土の佛像」, 『古美術』 99, 1991. 7.
- _____, 「山東地方の北朝石像の一考察—諸城出土の在銘像二體を中心として」, 『古美術』 101, 1991. 1.
- _____, 「諸城辰石彫考—南北朝樣式上の位置に就て」, 『古美術』 103, 1992. 8.

- 松原三郎,「山東地方東部造像考 ―とくに諸城出土佛像を中心として」,『中國佛教彫刻史論』,
吉川弘文館,1995.
- 大西修也,「山東省 青州出土 石造半跏像と韓國半跏像」,『文化史學』11・12・13합집, 1999,
12.
- _____,「山東省青州出土石造半跏像の意味するもの」,『佛教藝術』248, 2000.
- 岡田健,「佛教彫刻における朝鮮半島と中國・山東半島の關係」,『日韓兩國に所在する韓國佛
教美術の共同調査研究 研究成果報告書』,奈良國立博物館,1993. 3.

중국 山東省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므로 불교조각의 對中交涉史 연구에서 항상 중요한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산동성의 駝山石窟이나 雲門山石窟은 三國時代의 磨崖佛의 조성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산동성의 古都인 諸城과 靑州 등지의 사원지에서 대규모로 佛像이 출토되어 산동성의 불상 자료는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이들 중 제성 출토의 금동일광삼존불상이나 청주 龍興寺址 출토 北齊代 偏袒右肩 如來立像, 半跏思惟石像 등은 삼국시대의 불상과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지적되었으며, 이로써 삼국시대 高句麗·百濟·新羅 각국의 불상들은 산동성의 불상들과 다방면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조각사 연구에서 중국 산동성 출토 불상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매우 필수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삼국시대 불상들과 연관되는 南北朝時代부터 隋, 初唐時代까지의 산동성의 불상 자료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삼국시대 불상들과 비교 고찰하였다.

산동성의 불교문화를 살펴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산동성이 해양 실크로드의 중국측 종착지라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미 東魏代부터 인도 불상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며, 특히 北齊代에는 매우 개방적인 특징을 드러내어 인도 불상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또는 서역의 다양한 불상들을 모방하여 불상을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산동성의 불적은 建康을 중심으로 한 南朝 중심지역의 불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재로서 海路를 통해 수용된 불교문화의 寶庫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산동성의 불교문화가 삼국시대 불상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高句麗佛像의 경우는 6세기 禪定印像과 一光三尊佛形式상들에서 산동성 불상과의 관련이 나타나므로 삼국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금동일광삼존상의 경우는 보다 교착인 북위양식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서 차이를 보인다.

백제 불상의 경우는 西海에 면한 지역에 있는 磨崖佛의 조성배경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백제가 남조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도 산동성 불상과의 관련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산 지역의 마애불을 포함하여 백제의 중국 불교문화 수용 문제는 넓게 해로 문화의 전파 과정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 남조 불교문화와의 관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바와 같고, 산동 지역과 관련해서는 如來像의 服制 문제가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주 용흥사지 북제대의 인도풍 불상과 관련하여 태안 마애삼존불상과 정읍의 편단우견 상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新羅와 산동성 불상과의 관련은 偏袒右肩 如來立像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는데, 이 상들 역시 남방 해로 문화의 전파 과정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라의 편단우견 여래입상들이 산동성 불상들보다 더 농후하게 인도 불상의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A Comparison of the Buddhist Sculptures of Shandong Province in China with Those in the Period of Korea's Three Kingdoms

Kim, Choonsil

Because of the geographical vicinity to Korea, Shandong Province in China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region in comparative studies with relationship to the Buddhist Sculptures of China and those of Korea.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the Cliff Rock Triads (磨崖佛)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he Tuoshan (駝山石窟) and Yunmenshan grottos (雲門山石窟) of Shandong Province became the focus of public attention. Since the late 1970s, a great number of Buddhist sculptures have been excavated on a large scale in Zhucheng (諸城) and Qingzhou (青州), and there were more plentiful materials concerning the Buddhist Sculptures of Shandong Province. Among them, the Gilt-bronze Triads (金銅三尊佛像) excavated in Zhucheng, the Standing Buddhas with the nuded right shoulder (偏袒右肩 如來立像), and the Pensive Bodhisattva (半跏思惟像) excavated in Longxingsi temple site (龍興寺址) in Qingzhou might be closely related to the Buddhist Sculptures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Hereby, I confirmed that the respective Buddhist Sculptures of Goguryeo, Baekje, and Silla were related to those of Shandong Province in many respects. Therefore, in study on the history of the Buddhist Sculptures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it is inevitable to comprehensively investigate the Buddhist Sculptures in Shandong Province. For this study, I examined the materials concerning the Buddhist Sculptures of Shandong Province from the Period of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to that of Sui, early Tang. These Sculptures were related to those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as well. In addition, I compared the Buddhist Sculptures of Shandong Province with those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While I studied the Buddhist culture in Shandong Province, I found a very important fact that Shandong Province was the destination of Silkroad by sea on China's side. For that reason, there was partial influence of Indian style Buddhist Sculptures in the Buddhist culture of Shandong Province from the period of Eastern Wei. Especially, in the period of Northern Qi, the Buddhist Sculptures of Shandong Province had accepted many cultures, and they were formed on the model of a variety of Buddhist Sculptures from East, South and Central Asia. At present, there are no Buddhist Sculptures in central regions of Southern Dynasties, which had set up Jiankang (建康) as a central axis. So the Buddhist remains of Shandong Province become the new focus of public attention as a treasury of the Buddhist culture accepted by sea.

After comparing the Buddhist Sculptures of Shandong Province which have these characteristics with those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I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 case of the Buddhist Sculptures of Goguryeo, as the Seated Buddha with Dhyana Mudra (禪定印 如來坐像) and the Gilt-bronze Triads made in the 6th century had a connection with the Buddhist Sculptures of Shandong Province, I could infer that Goguryeo was influenced by the Buddhist culture of Shandong Province from the earliest period. But as the Gilt-bronze Triads followed the older style of Northern Dynasties, it was different from those of Shandong Province.

Second, in case of the Buddhist Sculptures of Baekje, through both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Cliff Rock Triads situated in western sea coast and the fact that Baekje was influenced by the Buddhist culture of Southern Dynasties, the Buddhist Sculptures of Baekje were very closely related to those of Shandong Province. The issue of Baekje's acceptance of Chinese Buddhist culture including the Cliff Rock Triads of Seosan Province should be understood in spread process of the culture by sea. Among them, the connection between the Buddhist Sculptures of Baekje and the Buddhist culture of Southern Dynasties has been continuously mentioned. In connection with Shandong Province, the dress regulation of Standing Buddha is a critical point. Moreover, in connection with Indian style Buddhist Sculptures of the era of North Qi excavated in Longxingsi, I compared the Cliff Rock Triad of Taean (泰安) and the Standing Buddhas of Jeongeup (井邑).

Finally,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Buddhist Sculptures of Silla and those of Shandong Province, I looked into the Standing Buddha with the nuded right shoulder. These statues were related to the spread process of the culture by sea. Moreover, the Standing Buddha with the nuded right shoulder of Silla was more profoundly influenced by Indian style Buddhist Sculptures than by Buddhist Sculptures of Shandong Province.